

제2언어 한국어 격조사 교체 습득에 작용하는 언어적 조건 연구*

박선희¹ · 김현우^{2†}

¹이화여자대학교 · ²연세대학교

Linguistic Conditions affecting L2 Learners’ Acquisition of Korean Case-Particle Alternation

Sun Hee Park¹ & Hyunwoo Kim^{2†}

¹Ewha Womans University, ²Yonse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inguistic and L1-related factors affecting advanced L2 Korean learners’ acquisition of case-particle alternation, with emphasis on morphosyntactic and lexical-semantic conditions. Specifically, it analyzes Japanese L1 and Chinese L1 learners’ judgments of causative constructions and quotative clausal complements. In causative constructions (morphosyntactic condition), Japanese L1 learners demonstrate non-native-like performances owing to morphological incongruency with Koreans. By contrast, in cognitive clausal complements involving ergativity (lexical-semantic condition), they demonstrate native-like sensitivity, thus suggesting the facilitative role of morphological congruency. Chinese L1 learners, whose native language is devoid of a case-marking system, experience persistent difficulties with both constructions. These findings challenge the interface hypothesis, which predicts fewer difficulties in internal interfaces, and indicate that morphosyntactic phenomena may pose challenges when L1-L2 alignments are weak.

Keywords: case alternation, morphosyntactic condition, lexical-semantic condition, Korean L2 acquisition, L1 variation

1. 서론

본 연구는 제2언어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에 형태통사적 층위, 어휘의미론적 층위의 정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하여 한국어 조사 교체 구문의 습득 양상을 밝히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1047674).

† Corresponding author: hyunwoo2@yonsei.ac.kr



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한국어 조사 교체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고급에 이르러서도 극복되지 않는 조사 교체인데, 특히 ‘이/가’와 ‘을/를’의 대치 오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Ju, 2018).

한국어 격조사 간 교체 현상에 대한 습득 연구는 단순 조사 오류에 대한 연구(Kim & Han, 2009; Kim & Nam, 2002; Kim, 2006; Ko et. al., 2004; Park & Kim, 2016; Song, 2018)가 주를 이루었다. 조사 교체 구문에서 일어나는 격조사 교체 현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는 처소교체 구문(Park & Kim, 2017; Park 2014b; Park, 2014a), 사동문의 피사동주 조사 교체(Park, 2017a; Park 2017b; Park, 2020), 이동동사 구문(Park, 2018), 여격 구문(Shim, 2020) 등의 습득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조사 교체 구문에서의 조사 연구는 주로 한 가지 유형의 개별 구문에 한정된 현상 기술적 습득 연구들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대상 학습자의 모어도 주로 하나의 언어권으로 한정되어 교차언어적 영향을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조사 교체 현상을 구문 특징적인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구문에 따라 달라지는 조사 교체 현상의 언어적 정보를 학습자들이 인식하고 어떻게 구문 습득에 활용하여 지식에 통합해 나가는지를 여러 조사 교체 구문들을 대상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2. 한국어 조사 교체 구문 습득에 작용하는 요인

본 연구는 한국어 조사 교체 구문 가운데 사동문(causative construction)과 ‘생각하다’와 같은 인지 동사를 상위문 용언으로 가지는 보문절 구성의 사유구문(cognitive clausal complement)을 중심으로 한다. 두 구문에서 조사 교체의 언어적 조건은 차이를 가지는데 사동문은 구문이 가지는 형태통사적 조건에 의해 조사 교체가 일어나고, 사유구문은 내포문 용언의 의미론적 조건에 의해 조사 교체가 일어난다.

제2언어 습득에서 이처럼 다양한 언어학적 층위의 여러 정보를 함께 참조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문장 처리에서 인지적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Hopp, 2009; Sorace, 2011). 언어학적으로 다중 층위의 정보를 통합해야 하는 경우 제2언어 문장 처리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접면가설(interface hypothesis)을 통해 서구 언어 습득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접면가설에서는 언어 내 구성 체계 간의 관계에 따라 난이도를 달리 보며, 이를 내적 접면(internal interface)과 외적 접면(external interface)으로 구분한다(Sorace, 2011). 내적 접면은 통사-의미론(syntax-semantics)과 같이 문법 체계 내부의 정보 통합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습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예컨대, 그리스어를 모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들은 용언의 상(aspect)이나 종결성(telicity)과 같은 통사-의미론적 언어 현상에서 목표어와 유사한 수행을 보인 사례가 있다(Tsimpli & Sorace, 2006). 반면, 외적 접면은 통사-담화

(syntax-discourse)나 통사-화용(syntax-pragmatics)처럼 문법과 담화, 인지 자원 간의 통합이 요구되는 경우로, 실시간 처리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에게도 중간언어적 변이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의 이탈리아어 학습에서 주어 대명사의 사용이 담화 정보와 불일치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었던 사례(Sorace & Filiaci, 2006)나 영어 L1 학습자의 스페인어 학습에서 주어 실현에서 담화적 맥락 정보를 참조하는 데 실패 한 사례(Montrul & Rodriguez, 2006)는 외적 접면의 습득 취약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White(2011)는 외적 접면에서의 오류가 반드시 지식의 결핍을 의미하지 않으며, 접면 현상을 내적 접면과 외적 접면으로 이분화하는 것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설명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외적 접면의 습득이 단순히 층위 간 통합의 유무나 실시간 처리의 문제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현상별 특성과 인지적 요인, 개별 학습자의 숙달도, 과제 유형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접면가설에 대한 세부적이고 맥락화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Slabakova(2009)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습득의 난이도는 언어 현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어와 목표어의 형태 대응이 일치하는 경우는 언어 자질(feature)에 대한 조정(feature re-assemble)이 필요한 경우에 비해 습득이 쉬울 것으로 보았다. 제2언어 습득에 작용하는 언어적 정보 즉 단서들과 모어의 영향 관계에 집중한 입장은 그동안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매우 활발히 논의되어 왔는데, 모어와 목표어 간 존재하는 형태 통사적 차이는 궁극적으로 극복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Jiang, 2004, 2007; Ojima, Nakata & Kakigi, 2005)과 높은 숙달도에 도달한 학습자들의 경우는 형태통사적 정보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목표어 문장 처리를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다고 보는 입장(Trenkic, Mirkovic & Altmann, 2014) 등이 있다. 이처럼 제2언어 습득의 경로에 모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간언어는 이에 따른 변이를 보이게 된다고 보는 입장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의 조사 교체 현상에 작용하는 모어 변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접면 유형의 특성과 모어와 목표어의 구문상 대응의 차이가 습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문 습득에 주목한다. 기존 접면가설이 언어적 정보의 통합 방식에 내적 접면과 외적 접면으로 구분하여 습득상의 어려움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이미 White(2011)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동일한 접면 유형에 속하더라도 언어 현상에 따라 습득 양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형태통사적 정보가 요구되는 사동문(causative construction)과, 어휘의미론적 정보가 추가적으로 관여하는 사유구문(cognitive complement construction)을 내적 접면에 속하는 두 유형의 조사 교체 구문으로 조건화하여, 기존 내접 접면상의 제2언어 습득에 대한 예측을 재검토하고, 언어학적 층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습득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모어의 영향이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체계가 있는 언어인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이하, 일본인 학습자) 집단과 조사 체계가 부재하는 언어인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집단(이

하, 중국인 학습자)을 학습자 집단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접면 정보의 처리와 습득 경로가 학습자의 모어 배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접면가설이 제안하는 접면 내 습득 가능성이 제2언어 한국어 조사 교체 구문 습득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교수 현장에서 단순한 입력 제공과 오류 수정에 그치지 않고 조사 교체 구문의 언어적 조건을 학습자의 모어 배경에 따라 조정하여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어 사동문과 사유구문의 조사 교체와 학습자 모어의 대응

본 장에서는 본 연구가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조사 교체 구문의 언어적 조건과 학습자 모어에서의 대응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예문 (1가)에서 목적어의 ‘이/가’와 ‘을/를’의 교체는 비문이 되는데, 이는 용언 ‘먹다’ 어휘 내향이 가진 논항 구조를 잘못된 통사 구조로 사상(mapping)했기 때문이다.

- (1) 가. *철수는 밥이 먹는다.
나. 철수는 밥을 먹는다.

한편, ‘이/가’와 ‘을/를’의 교체가 구문의 형태통사적 조건에 따라 문법성을 달리하는 예가 있다. 사동문 가운데 장형 사동문은 피사동주의 격 표지로 ‘이/가’와 ‘을/를’의 두 유형을 모두 택할 수 있는 데 반해, 단형 사동문에서 피사동주는 ‘이/가’와 결합할 수 없다.

- (2) 가. *어머니는 아이가 재웠다. [단형 사동문]
나. 어머니는 아이를 재웠다.

- (3) 가. 어머니는 아이가 자게 했다. [장형 사동문]
나. 어머니는 아이를 자게 했다.

한국어의 장형 사동문은 보조적 연결어미 ‘-게’를 포함한 보조용언 구성 ‘-게 하다’로 구문화되므로 (3)에서와 같이 피사동주를 목적격조사뿐만 아니라 주격조사로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장형 사동문과 달리, 단형 사동문 (2나)에서는 ‘이/가’가 피사동주 자리에 격조사로 쓰일 수 없는데, 이는 형태적 사동문인 단형 사동문에서 주격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보조적 연결어미와 같은 형태통사적인 조건으로 피사동주 명사구에서 주격조사의 실현이 차이를 가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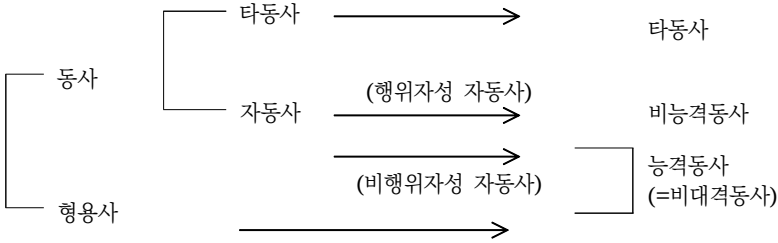
한편 한국어 ‘생각하다’와 같은 동사로 구성되는 사유구문에서는 어휘의미론적 층위를 참조하는데, (4)와 (5)에서 조사 교체는 용언의 의미론적 속성인 능력성(ergativity)에 의해 조건화된다.

- (4) 가. 어머니는 민희가 떠다고 생각했다. [사유구문: 비능력동사 내포문]
 나. *어머니는 민희를 떠다고 생각했다.
- (5) 가. 어머니는 민희가 예쁘다고 생각했다. [사유구문: 비대격동사 내포문]
 나. 어머니는 민희를 예쁘다고 생각했다.

사유구문은 인용표지 ‘-고’를 가지고 있어 인용구문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되며(Lee, 1995), 사유구문은 피인용문 또는 인용 보문(quotative clausal complement)으로도 불린다. 사유구문의 내포문 (4나)의 주어 명사구에는 목적격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5나)의 주어 명사구에는 목적격조사가 결합한다. (4)의 행위자성 자동사인 ‘떠다’는 비능력동사이고, (5)의 ‘예쁘다’는 형용사, 곧 비대격동사인데¹⁾, 이와 같은 조사 대응의 비대칭은 용언의 의미론적 속성인 능력성(ergativity)에 따른 차이이다. 즉, 어휘가 가진 상태성(stativity)이나 행위자성(agentivity)과 같은 어휘의미론적 자질이 통사적 층위의 조사 실현에 제약을 가져오는 것이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2), (3)의 경우는 사동구문의 형태통사적 정보, (4), (5)의 경우는 사유구문이라는 내포문 구조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내포문 용언의 의미론적 정보를 각각 활용해야 하는 경우들이다. 이들 구문에서는 (1)에서와 같이 용언의 논항 구조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는 두 구문이 가지는 조사 실현의 제약을 변별해 낼 수 없다. (2), (3)에서는 형태적 층위와 통사적 층위의 제약 인식이 필요하며, (4), (5)에서는 형태통사적 층위와 어휘의미론적 층위의 접점에서 내접 접면(interface)을 통해 일어나는 제약을 참조해야 하므로 각 구문이 가지는 언어적 특성이 다르다.

1) 한국어의 능력성 실현과 이에 따른 용언의 하위 분류는 Ko(2001, p. 40-52)를 참조할 수 있다. Ko(2001)는 비대격동사를 상적 의미 구조에서 상태(변화)성에 속하는 논항만을 취하는 동사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비행위자성을 갖는 자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범주화하고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Ko, 2001, p. 45, 예문(23)). 참고로 Ko(2001)는 본 연구의 비대격동사를 ‘능력동사’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조사 교체가 일어나는 한국어 문장들에서 조사 실현이 학습자의 모어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관찰하고자 한다. 중국어의 경우 언어유형론적으로 고립어이므로 조사 체계가 부재하며 조사 교체 현상도 관찰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교착어인 일본어는 한국어와 같은 조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사 교체 현상도 관찰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두 구문의 조사 교체를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

먼저, 일본어의 사동문은 사동 접사 ‘-させる(-*(sa)seru*)’가 결합한 접사 사동(*affixal causative*)으로(Shibatani, 1990),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인 단형 사동에 형태적으로 대응된다. 일본어 사동문의 피사동주 조사 교체는 다음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문에서 일어나는 조사 교체와 동일하게 대응된다.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장형 사동이 부재하므로 한국어의 장형 사동에서 피사동주가 주격으로 실현되는 것은 일본인 학습자들에게 매우 낯선 형태적 현상이 될 것이다.

(6) 가. *母は 子どもが 寝かせた。
 어머니-TOP 아이-NOM 재웠다
 ‘*어머니는 아이가 재웠어요.’

나. 母は 子どもを 寝かせた。
 어머니-TOP 아이-ACC 재웠다
 ‘어머니는 아이를 재웠어요.’

일본어 사유구문의 내포문 주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조사 교체는 Kuno(1976, p. 26) 등에서 일본어 인용보문(*quotative clausal complement*)의 조사 교체 현상으로 보고되었으며 다음 (7),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조사 교체 현상에 대응된다.

(7) 가. 母は ミニが 走ると 思った。
 어머니-TOP 민희-NOM 뛰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민희가 뛰다고 생각했다.’

나. *母は ミニを 走ると 思った。
 어머니-TOP 민희-ACC 뛰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민희를 뛰다고 생각했다.’

(8) 가. 母は ミニが きれいだと 思った。
 어머니-TOP 민희-NOM 예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민희가 예쁘다고 생각했다.’

나. 母は ミニを きれいだと 思った。
 어머니-TOP 민희-ACC 예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민희를 예쁘다고 생각했다.’

내포문의 용언이 비능격동사인 경우, (7가)와 (7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어 사유구문의 내포문 주어는 주격 표지(NOM)로 실현되고 대격 표지(ACC) 실현은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일본어 사유구문의 내포문 용언이 비대격동사인 (8가), (8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약이 모두 해소된다. 따라서 일본어의 사유구문에서 일어나는 조사 교체가 한국어의 사유구문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사동문 피사동주와 사유구문의 내포문 주어에서 나타나는 조사 교체가 언어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어와 달리 조사 체계를 갖춘 일본어에서 대응되는 조사 교체 양상은 한국어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제2언어 습득에서 모어의 영향을 앞서 살펴보기도 하였으나, 제2언어 습득에서 모어의 영향은 언어유형론적 차원의 유사성으로 충분하지 않고 두 언어에 존재하는 특정 구문별 형태적 유사성이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 바 있다 (Jiang et al. 2011). 만일 이와 같은 주장이 한국어 조사 교체 습득에 적용된다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어와 형태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유구문에서 그렇지 못한 사동문에 비해 조사 교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한국어의 사동문과 사유구문의 언어적 조건은 참조의 언어학적 층위와 복잡성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나 일본어와의 대응에서는 부분적 형태적 유사성을 가지는데 중국인 학습자에 비해 일본어인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2언어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교체 구문에 대한 문법성 인식을 관찰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화자는 언어적 조건을 달리하는 조사 교체 구문에 대한 문법성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일본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는 조사 교체 구문에 대한 문법성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1은 형태통사론적 조건에 의해 조사 교체가 일어나는 사동문과 어휘의미론

적 조건에 의해 조사 교체가 일어나는 사유구문에 대한 문법성 판단에서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어화자 집단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문제 2는 학습자 모어에 조사 체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L2 한국어 조사 교체 구문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접면가설에 따르면, 형태통사 층위와 어휘의미론적 층위 간의 접면은 내적 접면에 해당하므로 담화나 화용 층위와 통사 층위 간 접면인 외적 접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득이 용이할 것으로 본다(Tsimpli & Sorace, 2006). 그러나 언어 현상별 특성이나 인지적 요인 등 다양한 변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내적 접면과 외적 접면에 대한 이분법적 입장은 지양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White, 2011). 만일 내적 접면에 해당하는 언어적 현상이 한국어 조사 교체 구문 습득상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고급 수준의 학습자는 사동문과 사유구문에 대한 문법성 인식에서 한국어 모어화자와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모어의 조사 체계 유무나 구문별 형태적 유사성 여부가 한국어 습득 경로에 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동일한 내적 접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는 두 유형의 조사 교체 구문에 대한 문법성 인식에서 서로 상이한 중간언어적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4.1. 피험자

본 연구는 한국어 조사 교체 구문 습득에 모어 변인이 작용하는지 관찰하고자, 일본어와 중국어 L1 고급 한국어 학습자로 실험 집단을 구성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을 통제 집단으로 포함하였다. 피험자는 20~30대 성인 남녀 12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중 한국어 모어화자 42명이고, 학습자는 집단은 고급 수준의 학습자로, 일본인 학습자 43명, 중국인 학습자 38명이었다. 학습자 집단은 조사 체계를 갖춘 일본어 L1 학습자와 조사 체계가 부재한 중국어 L1 학습자들로, 이는 모어의 언어유형론적 특성이 L2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가 사동문과 사유구문을 선수 학습한 수준임을 전제로 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중급 단계에서 사동문과 사유구문 등 확장된 문장 구조를 학습하므로(Kim et. al., 2017, pp. 219-220), 연구 대상 구문을 이미 학습한 고급 학습자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피험자의 모집은 SNS 등을 활용하여 일본인과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집 공고문에는 실험 참여 요건, 연구 목적, 소요 시간 및 실험 방식 등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실험에 앞서 피험자들의 한국어 숙달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5급과 6급의 소지 여부를 재확인하고 실험의 절차에 대한 설명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두 학습자 집단의 한국어 학습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한국 거주 기간은 중국인 학습자가 평균 3.9년($SD = 2.6$), 일본인 학습자가 평균 4.1년($SD = 6.1$)으로, 두 집단 간 유의

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79) = -0.144, p = .886, \text{Cohen's } d = -0.032$). 또한, 한국어 학습 기간은 중국인 학습자가 평균 4.4년($SD = 2.8$), 일본인 학습자가 평균 3.8년($SD = 2.9$)으로, 이 역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79) = 1.056, p = .294, \text{Cohen's } d = 0.235$). 한편, 두 집단의 한국어 숙달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네 영역에서 자신의 실력을 10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후, 네 영역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집단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학습자는 평균 6.9점($SD = 2.8$)이었고, 일본인 학습자는 평균 6.6점($SD = 1.3$)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표준편차의 차이를 고려하여,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Welch의 t-검정을 사용하여 집단 간 숙달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한국어 능숙도 자기 평가 점수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df) = 0.309, p = .758$). 이러한 결과는 두 언어 집단 간 한국어 학습 배경 및 숙달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4.2. 자료 수집 도구와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도구는 조사 교체의 언어적 조건을 달리하는 문장을 읽고 문장의 문법성을 리키트 척도로 표시하는 수용성 판단 과제(acceptability judgment task)이다. 본 연구의 문항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기준 조건이 총 18개 문항(비대격동사문 6개, 비능격동사문 6개, 타동사문 6개), 형태통사적 조건이 12개 문항(형태적 사동문 6개, 통사적 사동문 6개), 어휘의미론적 조건이 12개 문항(비대격동사 사유구문 6개, 비능격동사 사유구문 6개)이었다. 각 조건에 포함된 구문 유형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조건의 문항들은 상호 간에 혼란문항(distractor)로서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42개의 실험 문장 외에도, 여격 구문(dative construction) 10문항을 추가하여 포함시켰다. 기준 조건에서는 구문 유형에 관계없이 조사 교체에 따른 문법성 판단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두 조사 조건에 대해 조건균형화(counterbalancing)를 실시하였다. 반면, 형태통사적 조건과 어휘의미론적 조건에서는 구문 유형과 조사 교체에 따라 문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2 라틴정방형 설계(Latin square design)를 적용하여 실험 문장을 배열하였다. 아울러, 문장 제시 순서에는 동일한 구문 유형이 연속해서 세 번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응답자가 특정 구문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표 1. 문항 구성

조건	구문	조사 대응	문항 수(총 42개)
기준 조건	비대격동사문(형용사문)	주격 - 목적격	6개
	비능격동사문(자동사문)	주격 - 목적격	6개
	타동사문	주격 - 목적격	6개
형태통사적 조건	단형 사동문	주격 - 목적격	6개
	장형 사동문	주격 - 목적격	6개
어휘의미론적 조건	비대격동사 사유구문	주격 - 목적격	6개
	비능격동사 사유구문	주격 - 목적격	6개

기준 조건으로 삼은 비대격동사문, 비능격동사문, 타동사문은 한국어의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실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단문에서 용언의 논항 구조를 문장의 조사로 사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 여부를 관찰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집중하는 조사 교체 구문은 사동문과 사유구문이며 조사 교체의 언어적 조건을 다음과 같이 달리한다. 형태통사론적 조건에 의한 사동문은 피사동주의 주격조사 실현에 제약을 받아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 간 조사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단형 사동 조건과 조사 교체에 제약이 없는 장형 사동문 조건으로 나눈다. 어휘의미론적 조건에 의한 사유구문은 내포문 주어의 대격 조사 실현에 제약이 없는 비대격동사 조건과 목적격조사 실현에 제약이 있어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 간 교체가 불가능한 비능격동사 조건으로 나눈다. 각 조건별 문항 예시는 다음 (9)와 같다.

- (9) 가. 철수가/철수를 매우 멋있었어요. [기준조건: 비대격동사문]
나. 민희가/민희를 많이 웃었어요. [기준조건: 비능격동사문]
다. 지우가/지우를 신발을 먼저 신었어요. [기준조건: 타동사문]
라. 아영이 정희가/정희를 계속 올렸어요. [형태통사적 조건: 단형 사동문]
마. 도연이 재호가/재호를 많이 자게 했어요.
[형태통사적 조건: 장형 사동문]
바. 태준이 연아가/연아를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어휘의미론적 조건: 비대격동사문]
사. 지완이 유리가/유리를 자꾸 운다고 생각했어요.
[어휘의미론적 조건: 비능격동사문]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 판단 과제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온라인 설문 플랫폼인 Google Form(<https://www.google.com/forms/about/>)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문

항의 구체적인 예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에 앞서, 피험자들은 해당 설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수용성 판단 과업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본격적인 과업에 앞서, 연습문제 두 문항을 통해 실제 과업 수행 방식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피험자들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각 문장을 읽고, 4점 척도를 사용하여 문장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무작위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잘 모르겠음’과 같은 선택지도 함께 제공하였다. 수용성 판단은 문장을 접한 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안내하였으며, 과업 중 한 번 결정한 답은 수정할 수 없도록 지시하였다.

다음 문장을 읽고 밑줄 친 부분이 문법적으로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점수를 표시하세요.

어머니는 영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 1 (아주 어색)
☐ 2 (조금 어색)
☐ 3 (조금 자연스러움)
☐ 4 (매우 자연스러움)
☐ 잘 모르겠음

그림 1. 수용성 판단 과제의 예

4.3. 자료 처리와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처리와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험자 응답 중 ‘잘 모르겠음’을 선택한 비율은 전체의 0.3%였으며, 집단별로는 한국어 모어화자 0.05%, 중국인 학습자 0.9%, 일본인 학습자 0.09%로 나타났다. 해당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어 모어화자와 두 학습자 집단의 문법적인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조건별(기준 조건, 형태통사적 조건, 어휘의미론적 조건)로 혼합효과모형 선형회귀 분석(mixed-effects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통계값의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험자의 수용성 판단 점수는 z-score로 변환되었다. 기준 조건에 대한 분석에서 모델의 고정효과(fixed effect)로는 집단(모어화자, 중국인 학습자, 일본인 학습자)과 조사(‘이/가’, ‘을/를’)를 설정하였으며, 임의효과(random effect)로는 실험 참가자와 문항을 포함하였다. 형태통사적 조건의 경우에는 집단과 조사 외에도 구문(단형사동, 장형사동)을 고정효과로 추가하였다. 어휘의미론적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집단과 조사에 더해, 구문(비대격동사, 비능격동사)를 고정효과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에 대한 고정효과는 세 개의 집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Helmert 코딩을 사용하여 (1) 모어화자

와 비모어화자 집단 간 차이, (2)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 간 차이를 각각 비교하였다. 또한, 조사에 대한 고정효과는 contrast 코딩을 적용하여 ‘이/가’ 조건에 0.5, ‘을/를’ 조건에 -0.5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실험 참가자의 개별적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임의효과로 조사 고정효과의 기울기(slope)를 포함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임의효과에는 집단 고정효과의 기울기를 포함시켰다.

세 조건별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다중 비교로 인한 오류를 조정하기 위해 유의수준을 .017(0.05를 3으로 나눈 값)로 설정하였다.

5. 연구 결과

5.1. 기준 조건 결과

먼저, 한국어 모어화자(KOR)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HN),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JPN) 세 집단 모두 기본 조건이 되는 비대격동사문, 비능격동사문, 타동사문에서 주격 조사와 목적격조사에 대한 수용성 판단 결과를 살펴보았다. 기준 조건에서의 세 집단의 수용성 판단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혼합효과모형 선형회귀 분석 결과, 유의미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조사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b = 1.69, SE = 0.03, p < .001$) 이는 집단에 상관없이 주격 조건에 대한 수용성 점수가 목적격 조건에 대한 점수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 간의 집단 효과와 조사의 상호작용($b = 0.22, SE = 0.08, p = .006$), 그리고 모어화자와 학습자 집단 간의 집단 효과와 조사의 상호작용($b = 0.29, SE = 0.07, p < .001$)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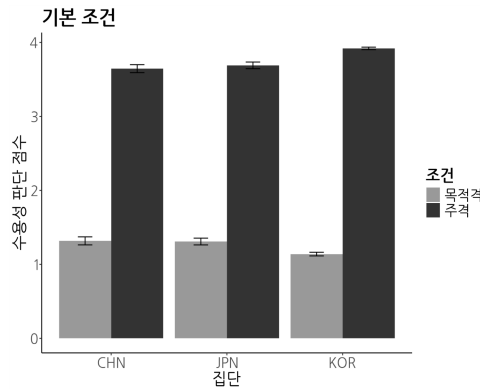


그림 2. 기본 조건에서 세 집단의 조사 변별

[목적적 조건]	*철수를 매우 멋있었어요.	[비대격동사문]
	*민희를 많이 웃었어요.	[비능격동사문]
	*지우를 신발을 먼저 신었어요.	[타동사문]
[주격 조건]	철수가 매우 멋있었어요.	[비대격동사문]
	민희가 많이 웃었어요.	[비능격동사문]
	지우가 신발을 먼저 신었어요.	[타동사문]

집단과 조사 간 상호작용이 관측됨에 따라, 각 집단 별로 조사 효과의 유의미성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 모두에서 조사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모어화자($b = 1.88, SE = 0.02, p < .001$), 중국인 학습자($b = 0.22, SE = 0.08, p = .006$), 일본인 학습자($b = 1.70, SE = 0.04, p < .001$). 이러한 결과는,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세 집단 모두에서 주격 조건의 문장이 목적적 조건의 문장보다 더 높은 수용성을 보였음을 시사한다.

5.2. 형태통사적 조건 결과

형태통사적 조건을 살핀 사동문에서 세 집단의 수용성 판단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혼합효과모형 선형회귀 분석 결과, 조사에 대한 유의 효과가 관측되었으며($b = -1.45, SE = 0.05, p < .001$), 집단과 구문에 대한 상호작용(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 간: $b = 0.28, SE = 0.10, p = .007$), 조사와 구문 간 상호작용($b = 0.28, SE = 0.09, p < .001$), 그리고 집단, 조사, 구문 간 상호작용($b = 0.55, SE = 0.17, p = .002$)이 관측되었다. 집단별 분석 결과, 한국인 모어화자의 경우 조사와 구문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발생하였고($b = 0.69, SE = 0.13, p < .001$), 이는 단형 사동에서 주격이 사용되었을 경우 수용성 판단 점수가 다른 조건들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음에 기인한다. 반면,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오직 조사에 대한 효과만 관측되었다($b = -1.35, SE = 0.11, p < .001$). 마찬가지로,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에도 오직 조사 효과만 관측되었다($b = -1.54, SE = 0.06, p < .001$). 이는 한국인 모어화자와 달리, 학습자 집단의 경우 구문에 상관없이 목적적 조건에 대한 수용성 점수가 주격 조건에 대한 점수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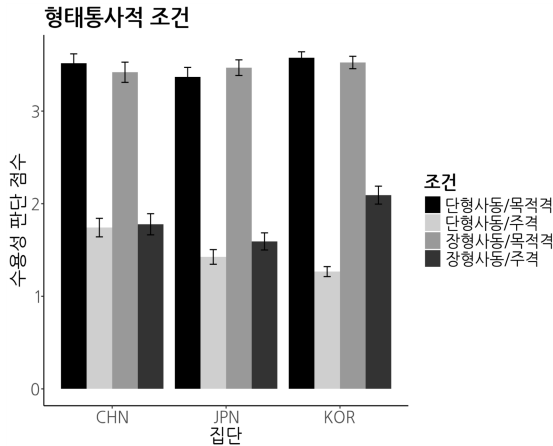


그림 3. 형태통사적 조건(사동문)에서 세 집단의 조사 변별

[목적격 조건] 아영이 정희를 계속 올렸어요.	[단형 사동문]
도연이 재호를 많이 자게 했어요.	[장형 사동문]
[주격 조건] *아영이 정희가 계속 올렸어요.	[단형 사동문]
도연이 재호가 많이 자게 했어요.	[장형 사동문]

5.3. 어휘의미론적 조건 결과

어휘의미론적 조건에 대한 집단별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혼합효과모형 선형회귀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로는 조사에 대한 고정효과($b = 0.74$, $SE = 0.09$, $p < .001$), 구문에 대한 효과($b = -0.66$, $SE = 0.06$, $p < .001$), 집단(중국인과 일본인 학습자 간)과 구문 간 상호작용($b = -0.50$, $SE = 0.13$, $p < .001$), 조사와 구문 간 상호작용($b = 0.73$, $SE = 0.10$, $p < .001$), 집단(중국인과 일본인 학습자 간)과 조사, 구문 간 상호작용($b = 1.36$, $SE = 0.26$, $p < .001$), 집단(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 간)과 조사, 구문 간 상호작용($b = 0.90$, $SE = 0.19$, $p < .001$)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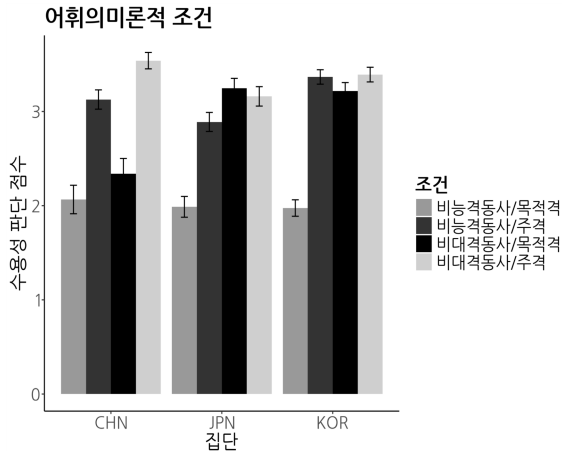


그림 4. 어휘의미론적 조건(사유구문)에서 세 집단의 조사 변별

- [목적격 조건] 도연이 재호를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비대격동사문]
 *지완이 유리를 자꾸 운다고 생각했어요. [비능력동사문]
 [주격 조건] 도연이 재호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비대격동사문]
 지완이 유리가 자꾸 운다고 생각했어요. [비능력동사문]

집단, 조사, 구문 간 여러 상호작용이 관측됨에 따라, 각 집단별로 조사 효과의 유의미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어화자의 경우 조사와 구문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었으며($b = 1.35$, $SE = 0.13$, $p < .001$), 이는 비능력 동사문에서 목적격이 사용된 조건이 나머지 조건보다 수용성 판단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데에 기인한다. 일본인 학습자 집단 또한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조사와 구문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관측되었다($b = 1.11$, $SE = 0.18$, $p < .001$). 반면,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조사에 대한 효과($b = 0.99$, $SE = 0.17$, $p < .001$)와 구문에 대한 효과($b = -0.38$, $SE = 0.10$, $p = .001$)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조사와 구문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제2언어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교체 습득에 작용하는 언어적 조건과 모어 요인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형태통사론적 정보와 어휘의미론적 정보가 한국어 조사 교체 구문에 대한 학습자들의 문법성 인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기본 조건(비대격동사문, 비능격동사문, 타동사문)에서 세 집단 모두 주어 자리에 목적격보다 주격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형태통사적 조건인 사동문에서는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 집단의 문법성 인식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학습자 집단은 모두 주격조사보다 목적격조사가 사용된 문장을 더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고, 비문이 되는 주격 실현 단형 사동문에서도 두 학습자 집단은 목적격 조건에 대해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구문 유형에 따른 조사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한국어 모어화자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한편, 어휘의미론적 조건인 사유구문에서는 한국인 모어화자와 일본인 학습자가 중국인 학습자와 문법성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모어화자와 일본인 학습자는 비능격동사문에 목적격이 사용된 조건을 문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중국인 학습자는 이 조건의 적절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한 반응을 보였고 해당 조건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2언어 한국어 학습자들의 조사 교체 습득에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형태통사적 조건인 사동문에서 학습자들과 모어화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비록 한국어 조사 교체 현상이 내적 접면(internal interface)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자 모어의 유형론적 특성과 구문상 형태적 유사성(morphological congruency)에 따라 습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어는 조사 체계가 있어 언어유형론적으로 한국어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어 장형 사동문의 피사동주가 주격으로 실현되는 현상은 일본어에는 부재하므로 두 언어의 사동문에서 주격 실현은 구문상 형태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형태통사적인 내적 접면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문상 형태적 유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습득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모어화자 수준의 습득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내적 접면에서의 제2언어 습득이 용이하다고 보았던 주장이 제2언어 한국어 조사 교체 습득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White(2011)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접면가설 적용에서 언어 현상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Slabakova(2009)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형태통사적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모어와의 대응에서 재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응이 유사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Trenkic et al.(2014)의 주장과 같이 높은 숙달도에 도달한 학습자들이 형태통사적 정보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일본인 학습자와 같이 모국어와 제2언어 간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이 구문의 조사 교체 현상이 명시적인 규칙과 대조언어학적 대비를 통해 습득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휘의미론적 조건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달리 일본인 학습자가 모어화자와 동일한 문법성 인식을 보였는데, 이는 목표어와 모어의 구문상 형태적 유사성이 사유구문의 조사교체 습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일본어의 사유구문에서의 조사 교체 양상은 한국어와 형태적으로 대응되므로, 두 언어 간 형태적 유사성이 제2언어 습득

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인 학습자는 사동문과 사유구문 모두에서 조사 교체에 대해 일관되게 문법적 민감성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는 내적 접면에서 일어나는 형태통사적 조건과 통사·어휘의미론적 조건이 고급 학습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습득상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내접 접면에서 일어나는 습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보았던 연구(Sorace, 2011)에 반하는 결과로 교수적 처치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조사 교체 현상은 다양한 구문에서 일어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어교육 교수 학습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두 구문에 대한 노출과 기본적인 구조가 중급에서 이미 교수 학습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 체계가 부재하고 조사 교체 현상도 경험하지 못한 언어권의 학습자에게 두 구문에 따라 달라지는 조사 교체 현상은 명시적 교수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어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조사 교체 현상을 가르칠 때, 단순히 개별 조사의 의미와 기능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문별로 달라지는 조사 교체의 언어적 조건을 명시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태통사적 조건이 작용하는 사동문과 같은 구문은 명시적인 규칙 중심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어휘의미론적 조건이 작용하는 사유구문은 용언의 의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모어 배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조사 체계가 부재하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 조사의 기본 기능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일본어와 같이 한국어와 유사한 조사 체계를 가진 언어권 학습자들에게는 두 언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비교하는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과는 현상 관찰에 머물지 않고 조사 교체 현상의 언어적 조건을 달리하여 여러 구문을 대상으로 조사 교체 습득에 나타나는 양상을 포착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 조사 연구는 개별 조사의 기능과 실현에 집중하여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조사 교체의 조건을 통사 층위와 어휘의미적 층위로 구분하여 조사 교체 현상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이전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조사 교체 습득에 나타나는 중간언어적 양상을 관찰하여 향후 한국어 제2언어 조사 습득에 대한 가설을 구축하고 이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Hopp, H. (2009). The syntax-discourse interface in near-native L2 acquisition: Off-line and online performance.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12, 463-483.

- Jiang, N. (2004). Morphological insensitivity in second language processing. *Applied Psycholinguistics*, 25, 603-634.
- Jiang, N. (2007). Selective integration of linguistic knowledge in adult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57, 1-33.
- Jiang, N., Novokshanova, E., Masuda, K., & Wang, X. (2011). Morphological congruency and the acquisition of L2 morphemes. *Language Learning*, 61(3), 940-967.
- Ju, J. (2018). An error analysis of the substitution between i/ka and eul/reul based on learner corpora: Focusing on Chinese and Japanese learners (in Korean). *Journal of Chinese-Korean Language and Culture*, 14, 9-47.
- Kim, J. S. & Nam, K. C. (2002). Error analysis and educational methods for English learners' use of Korean particles: Focusing on “-i/ga” and “-eun/neun” (in Korean). *Korean Language Education*, 13(1), 27-45.
- Kim, J., Lee, J., Kim, J., Park, N., Park, J., Lee, S., Kang, H., Jang, M., & Hong, H. (2017).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 Kim, Y. J. (2006). Error analysis of advanced English learners' use of Korean particles and verb endings.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31, 129-152.
- Kim, Y. S. & Han, C. H. (2009). Error analysis and causality of Chinese learners' acquisition of Korean particles: A generative grammar approach to the substitution errors of “ga” and “reul” (in Korean). *Korean Language Education*, 20(2), 29-52.
- Ko, K. (2001). *A study on ergativity in Korean* (in Korean). Wolin.
- Ko, S. J., Kim, M. O., Kim, J. Y., Seo, S. G., Jung, H. J., & Han, S. H. (2004). *Error analysis of Korean learners' corpus* (in Korean). Seoul: Korean Culture Society.
- Kuno, S. (1976). Subject raising. In M. Shibatai (Ed.), *Syntax and semantics 5: Japanese generative grammar*, (pp. 17-41). Academic Press.
- Lee, P. (1995). *A study on quotation constructions in Korean* (in Korean). Top Publishing.
- Montrul, S., & Rodriguez Louro, C. (2006). Beyond the syntax of the Null Subject Parameter: A look at the discourse-pragmatic distribution of null and overt subjects by L2 learners of Spanish. In V. Torrens, & L. Escobar (Eds.),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romance languages*, (pp. 401-418). Amsterdam: John Benjamins.
- Ojima, S., Nakata, H., & Kakigi, R. (2005). An ERP study of second language learning after childhood: Effects of proficienc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7, 1212-1228.
- Park, J. H. & Kim, K. H. (2016). A discussion on the errors in using Korean particles by Chinese learners (in Korean). *Cogito*, 79, 184-209.
- Park, K. N. (2020). *A study on the acquisition of case particles by Chinese learners of Korean* (in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S. H. & Kim, H. (2017).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processing of Korean locative constructions by Chinese speakers. *Acta Koreana*, 20(2), 591-614.
- Park, S. H. (2014a). A study on Japanese learners' grammaticality judgment of Korean

- locative alternation constructions (in Korean). *New Korean Language Education*, 99, 261-282.
- Park, S. H. (2014b). A study on Chinese learners' argument structure perception of Korean transitive locative alternation constructions (in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21(3), 97-116.
- Park, S. H. (2017a). A study on L1 English learners' use of Korean passive voice markers (in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24(3), 23-40.
- Park, S. H. (2017b). A study on Japanese learners' acquisition of Korean passive voice markers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3(4), 35-57.
- Park, S. H. (2018). A study on Thai learners' acquisition of Korean movement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4(3), 39-58.
- Shibatani, M. (1990). *The languages of Jap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m, E. J. (2020). *Syntactic priming effects in Korean particle alternation constructions used by Korean and Chinese learners* (in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Slabakova, R. (2009). Features or parameters: Which one make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easier, and more interesting to study? *Second Language Research*, 25(2), 313-324.
- Song, W. (2018). Error patterns and instructional methods for Chinese beginner learners' use of Korean particles: Focusing on substitution errors of "i/ga" and "eul/reul" (in Korean). *Journal of Writing Research*, 38, 119-147.
- Sorace, A. (2011). Pinning down the concept of "interface" in bilingualism. *Linguistic Approaches to Bilingualism*, 1, 1-33.
- Sorace, A., & Filiaci, F. (2006). Anaphora resolution in near-native speakers of Italian. *Second Language Research*, 22(3), 339-368.
- Trenkic, D., Mirkovic, J., & Altmann, G. T. (2014). Real-time grammar processing by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Constructions unique to the second language.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17, 237-257.
- Tsimpli, I. M., & Sorace, A. (2006). Differentiating interfaces: L2 performance in syntax-semantics and syntax-discourse phenomena. In D. Bamman, T. Magnitskaia, & C. Zaller (Eds.), *Proceedings of the 30th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pp. 653-664). Somerville, MA: Cascadilla Press.
- White, L. (201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t the interfaces. *Lingua*, 121, 577-590.

Sun Hee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GSIS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E-mail: sunheepark@ewha.ac.kr

Hyunwoo Kim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E-mail: hyunwoo2@yonsei.ac.kr

접수일자 : 2025. 3. 15
수정본 접수 : 2025. 4. 12
게재결정 : 2025. 4. 16